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모델적인 교회와 제자 -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

레위기11:45, 데살로니가전서5:23-25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창조하실 때,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과 말씀을 놓쳐서 마귀의 노예와 중,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기준, 수준, 표준이 바뀔 수 있고,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에게 중 되었던 부분과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이후에 개척한 교회인데, 단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통해 세운 교회였다. 그러나 데살로니가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로 잘 성장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교회를 보다 더 든든히 세우고 제자들을 세상 살릴 더 좋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1.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받을 부분과 갱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 칭찬 받는 내용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지역에서 짧은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디모테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디모테로부터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칭찬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나온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교회의 대표적인 표제이다. 원어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는 아이를 낳는 해산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것이 곧 다락방이고 지교회이다.

②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을 당하면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③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④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후반절이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가 많은 교회였다.

⑥ 순수하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⑦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강단메시지를 받는 자세이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2) 데살로니가교회는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너무 열정이 넘쳤던 나머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재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4장 16절에서 18절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과 말세에 갓 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5장 1절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든지 재림의 날이 와도 상관없다. 5장 6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사역자들의 자세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1)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목회자들과 복음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다락방, 미션홈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①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진짜 제자로 세우려 하심이다.

② 전도자들은 당당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락방 사역자, 교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2장 3절이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하거나 부정하게, 거짓되게, 속임수로 전도,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해야 한다.

③ 또한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2장 5절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 하시느니라' 이런 부분이 사역자에게 중요하다.

④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2장 6절이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된다.

(2)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빛의 대열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다.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성도가 진정으로 복음이 체질이 된 사람이고 이때 사탄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지극히 선한 선택을 말하고 있다.

② 이것이 되면 제자훈련이 끝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③ 나쁜 것은 말하거나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 5장 22절이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욕, 우상숭배, 거짓말과 같이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 버리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④ 전도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육이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5장 23절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후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빛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계획이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 설계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다. 완성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안에 있다.
2. 다음은 Vision이다. 우리들의 Vision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우리들이 선교한 237나라 민족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3. 우리들의 Dream, 꿈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듣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이다.
4. 다음은 Image이다. 우리도 데살로니가교회와 제자들처럼 복음적이고 모델적인 교회를 작품으로 남겨야 하겠다. 그 마음만 먹어도 사탄이 무릎 꿇는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제자의 삶을 실천해보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모델적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에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언약이 말씀을 붙잡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